

현 불 뉴 스

승가대 김포학사 후원법회

중앙승가대학교 발전위원회(위원장 월주스님)는 오는 14일 오후 6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신축공사 후원대법회'를 봉행한다.

한편 발전위는 지난 3월24일 현 학사가 △수행과 학습공간 협소 △불교전 문대학원의 설립 등 5개항의 김포학사 신축 당위성을 제시한 홍보문을 배포했다.

기초행자교육 업격 시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 3월20일 기초행자교육 시행지침에 대한 공고문을 발표했다.

교육원은 이번 공고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나, 행자교육의 질적 발전과 교육제도 정착을 위해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13일부터 시행 지침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불련 '불교자주화 실천기간'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자선)은 3·29 종단개혁 3주년을 맞이하여 3월 29일~4월 15일을 '불교자주화 실현을 위한 실천기간'으로 설정하고 종단개혁 비디오투영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3·29 정진계승과 불교발전의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한 이번 실천기간 중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보도내용 전 시전 △해탈사건, 종교편향정책 사례전 시전 △만경전 등이 열린다.

교육관계법 개정등 촉구

전국승가대학학원연합(의장 원돈)은 지난 3월 25일 '개혁불사 3주년을 맞이하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성련은 이 성명서에서 △현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 관계법 개정 △선본 사 직역사찰해제 반대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실천적 방법모색 △승무원장 및 대통령선거서 전향한 종단정치 풍토조성 등을 촉구했다.

육수수 1만톤 보내기 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는 제1차 '육수수 1만톤 보내기 캠페인'을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역과 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의 가두 모금액으로 중국 산 육수수 1만톤을 구입, 적십자사를 비롯 국제구호단체 등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5월31일까지 2, 3차에 걸쳐 진행될 캠페인은 명동 상업은행 앞과 서울역, 제일은행 본점 앞 등 서울 14개 지역에서 전개된다.

대불련 북동기 모금 전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는 지난 3월22일, 2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과 봉은사에서 각각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을 벌였다.

양일간 60여명의 성금을 모금한 대불련은 매일 두 차례 모금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성금은 한달에 한번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에 전달한다.

“가진 것 다 주고 싶었어요”

북한동포돕기 1천만원기탁 박상은씨



“한 민족인 우리 동포가 먹을 것이 없어 살기 힘들다는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동포를 위한다는 마음뿐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가 북동 동포돕기 모금운동을 4개월여 전개하는 동안 최고액인 1천만원을 성금한 박상은씨(52, 건축업). 그의 보살행은 고난한 인생역정이 드러내면서 더욱 감동을 주지만 그는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한사코 고개를 돌렸다.

“가진 것 다 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결코 뭘 얻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드리지요. 철갑옷보다도 강한 부처님 말씀은 제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20대 초, 박씨는 군복무 중 구속됐다. 그리고 청춘을 괴워 보내지 못한 채 다시 사회로 돌아온 것은 45세 중년이 돼서다. “선입하사의 심한 구타로 탈영을 했던 것이 월북의도라는 죄명이 돼버렸습니다.” 박씨는 합동했지만 부처님 말씀 때문에 외로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한다.

형무소서 20년 젊음 보내고 출소후 수지침봉사등 자비행

20년을 마치고 지난 89년 출소한 박씨는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비록 8년째지만 한번도 자신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위해 살았다고 마음 먹어 본적이 없다.

교도소에서 익힌 기술로 종족하지는 않지만 행복할 생활을 할 수 있게된 박씨는 젊은 사회생활 동안 남몰래 많은 자비행을 피웠다. 그의 본업은 건축업이지만 매일 아침 8시 홍제동 정포교원으로 출근(?)한지 6년째다. 그곳에서 오진내 불자들에게 수지침을 놓아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한편 대불련 간사 출신인 부인 배정순(32)씨는 ‘인생을 베풀며 살고 싶다’는 박씨의 뜻을 알고 현재 한의대진학을 위해 대입공부를 하고 있다.

박씨는 이밖에도 틈틈이 성남시 노인복지시설 자원원을 찾아가 노인들에게 침을 놓아주거나 필요한 약품, 생활용품을 보시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7371-114 불교안내전화 개통

전국 사찰·단체 1만5천곳 무료서비스

전화 한통화로 전국 1만 5천여 곳의 불교단체 사찰전화·주소를 알 수 있다.

24시간 전문전화상담기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는 2년여의 준비과정과 시험가동기에 지난 3월 29일 무료안내전화 ‘불교 114’를 정식개통했다.

7300-108과 7371-114 두대의 전화를 개설한 무료안내전화 ‘불교 114’는 전화국의 114안내와 마찬가지로 전화 한통화로 연락처, 주소가 필요한 일반인이나 불자들에게 전국 1만 5천여곳의 불교단체와 사찰을 안내해 알리기를 실현해주는 전화정보제공서비스이다.

불교 114 무료안내전화는 전화를 걸어 단체 사찰전화와 주소를 단체 사찰전화 주소를 문의하면 안내자원이봉사자가 컴퓨터 검색을 통해 관련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자비의 전화 신뢰권공장은 “앞으로 법회안내, 행사, 사찰유래, 부대시설, 부속기관등 신행정보와 참회도량, 기도도량등 특성화된 사찰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며 “다양한 불교정보를 구축하여 컴퓨터통신을 통한 안내서비스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기초선원 첫 임망식이 지난 3월24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개최됐다. (대구=이윤호 기자)

조계종 기초선원 첫입방

동화사에서 37명 결제

조계종 승가교육의 새 장을 여는 기초선원이 첫 신입생을 받아들이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기초선원은 최초의 불교교과과정 결제식을 지난 3월24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봉행하고 4월21일까지 한달간의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교과과정에 37명의 입학생과 6명의 청강생이 등록했다.

입학생들은 하안거와 동안거로 구성된 정규안거 8안거와 교과과정에 6안거를 성만해야 졸업하게 되며 정규안거는 제방의 전문선원에서, 교과과정은 기초선원으로 지정된 도량에서 집체교육형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이날 결제식에는 진제스님(기초선원 조실)을 비롯 진화스님(기초선원장) 무공스님(동화사 주지)기초선원 입학생 등 사부대중 80여명이 참석했다.

사찰에도 컴퓨터 ‘바람’

은혜사 승가대학원생 통신동아리 결성 운문사 전산실 개설...해인사 역경작업

산문안에도 컴퓨터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 은혜사(주지 법타) 승가대학원의 경우 11명 학생 전원이 컴퓨터통신으로 동아리를 결성해 인터넷파일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며 경전 현대화 작업을 펼치는가 하면, 노트북컴퓨터로 세미나를 준비하기도 한다. 또 승가대학원생들은 펜타입노트북컴퓨터(1백 20MHz)를 갖고 각종 과제와 논문 준비 경진공통번역 및 입력작업을 하고 있다.

대학원생 스님들은 이날 중순종 4개월가량 컴퓨터로 공동작업한 <금강경전서>(4백쪽분량)를 발간한다. <금강경전서>는 중국 구마라집대사의 한역본을 육조 해능대사 등이 해석한 전통사찰의 <금강

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에다가,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산스크리트어 원본과 구마라집 보리유지 진제스님 달마집다 현장법사 의정 등 육가의 금강경한역문을 덧붙여 집대성한 것.

승가대학원 용학스님은 “승가대학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찰이나 승가대학 스님들도 인터넷에서 대안이나 일본의 경전파일을 다운 받아 한글파일로 바꾼 뒤, 국내컴퓨터통신에 전자우편으로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로 승가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들 ‘컴박스’들은 나무누리통신망에 SANGA라는 채화용자그롬(CUG)방을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밖에 비구니사찰인 청도 운문

사(주지 명성)가 20여대의 펜타입 컴퓨터로 전산실을 구성해 놓았고,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 스님들은 컴퓨터로 경전번역 입력작업을 수차례 해오고 있다.

용공서비스 낙동강 추락

지난 3월27일 부산 해동용공서비스가 구포신대교에서 중앙분리턱을 넘어 뒤 다리간판을 들이받고 20m 아래 낙동강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박봉수씨를 비롯 승객 6명중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허성호씨(53·부산 구포3동)만 구조됐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뇌허불교 학술상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뇌허학술상은 불교의 대석학, 고집, 동화, 박사,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83년 제정돼 매년 4월 5일 정각사에서 시상식을 갖고있다.

뇌허학술원에 따르면 “올해는 저술 12편과 논문 85편이 본심에 올라 양적인 증가를 보였지만 주제와 내용에서 우수한 작품을 찾을 수 없어 선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기존의 수상자들을 제외 시키는 뇌허학술원의 수상작 선정방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2년 연속해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이는 많은 역설적으로 ‘상을 달만한 논문이 그렇게도 없나’하는 탄식을 불러일으킨다.

수상자 없는 ‘뇌허학술상’ 지적이 있어 온 것은 꽤 오래 전부터이다. 그동안 불교학계에는 연구다운 연구, 논문다운 논문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론이 있어왔다.

세미나장에 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경우가 많고 성의없 는 요식행위식의 토론·평가가 적지않다는 것이 학계에서 나오는 자발의 일상이다.

불교학 관련 논문을 접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가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일부 논문 중에는 각종 문헌을 비교 분석해야 할 당위성을 배제해 논지(論旨)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

기 때문이다. 이런 논문을 대하면 학문적 가치의 재생산이 왜 안되는지 답이 저절로 나온다.

현재 교계의 순수 불교학술상은 뇌허상 외에 불이산 가산상 등에 불과하다. 얼마 되지 않는 상조차 졸만한 논문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아마추어무선국 ‘롬비니’ 운영

석왕사 전국전파망 불우이웃돕기등 활동

동국대아마추어무선국(HL0)에 이어 교계에서 두번째로 개설된 아마추어무선단체인 롬비니(대표 영담, 회장 송기준)가 지난 3월 30,31일 부천 석왕사에서 첫 공개운용회를 가졌다.

운전봉사자들의 모임인 부천불문회(회장 송기준)와 덕유사회복지

관(관장 영담)이 공동주관한 장애인 가족행사에서 12명의 무선사들은 공개운용을 통해 60여명의 회원들에게 장비사용 방법과 통신요령을 지도하며 시범운용해 불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3명의 전문 불자 무선사들이 뜻을 모아 올해 2월

제간 '多寶'가 '불교와 문화'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여러분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하여 현대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불교와 문화'는 현실의 계층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의 정수를 일깨우고 널리 알리는 작업을 통해 불교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것입니다.

97년 불호 주요목차: 해의통신, 중국 지도자들의 화력이 주는 교훈, 특별기고/서양의 손가락과 동양의 달. 지상논쟁: 대승(佛說·非佛說), 出定後語를 통해 제기한 대승 비불설의 근거, 大乘佛敎史論을 중심으로 본 대승경전의 불설론, 대승 불설·비불설론의 절충적 관점. 특집: 전생과 나, 문헌사적으로 살펴본 전생과 윤회, 정신과학적 측면에서 본 최면과 전생요법, 내가 본 최면, 불교 윤회설의 의의, 내가 느끼는 전생, 전생과 윤회 관계는저목록. 인물포커스/역사인물 재발견 시리즈 - 법공(法空) 스님, 화보/사진으로 보는 聖賢기행 - 96년 새로이 지정한 성모를 찾아서, 최초번역/태고 보우국사의 삶과 사상이 깃든 禪詩, -太古魔歌를 듣는다. 생태탐사기/가야산 일대와 선운사 야생화를 찾아서, 불교계 주요행사일지·불교관련저서 종합색인·인터넷 불교·좋은 책 읽기

부처님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서울·수도권지역 현수막 설치하여 드립니다. (설치비 별도) - 초파일 15일전부터 10일전까지 설치(미리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 90cmx5m 현수막도 있습니다. (35,000원). 불기 2541년 5월 14일(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하 대한불교 조계종 〇〇사 크기/90cm x 6m 가격/40,000원. 불기 2541년 5월 14일(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하 〇〇사 크기/90cm x 8m 가격/50,000원. 불기 2541년 5월 14일(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하 〇〇사 크기/90cm x 10m 가격/60,000원. 부처님오신날 봉축 리본 수동식 100개 25,000원 기계식 100개 40,000원. 부처님오신날 봉축 어깨띠(1장 : 2,500원) 100장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 드립니다. 부처님과 함께 하는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 (02)738-8682. 총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